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새로운 리더들을 위해 | 박종화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마옹 분딕, 올란다 | 박영일
마라뽕 조기 복구 사업, 그리고 4개월 | 오성근
- 16 **망글라바, 미얀마**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 | 금시열
- 19 **싸바이다, 라오스**
싸바이다, 삐마이!! | 박용대



국내소식

- 23 **함께 나누는 사랑**
거제도 애광원 경주 봄 나눔이



활동터소식

- 24 **해외, 국내 JTS 뉴스**
인도/필리핀/미얀마/라오스
- 29 **후원인의 소리**
- 33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4. 5. 12 퍼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퍼넨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정현, 이주희, 윤재승, 김옥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추위가 물러가고 꽃 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JTS 후원회원님께 이번 5-6월호에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인도 지바카 병원에 새로 들어온 6,7학년 중학생 신입 직원들의 적응기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일을 배우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을 하려면 통역이나 현지 물품의 시세파악을 위해 현지인 활동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난 10년간 필리핀JTS와 함께 한 현지인 스텝 미오(Romeo Suello)씨도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 해외 사업장에서 그 동안 수고했던 활동가들이 복귀하고 새로운 활동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언어 문제인데, 파견 활동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얀마에 새로 파견된 활동가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장을 안정화시키고 기존 활동가들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자 신년맞이 축제인 '삐마이'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4월 중순에 새해를 맞이한 라오스에서 활동가들이 처음 겪은 '삐마이'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보내왔습니다.

JTS 사업장의 소식들이 회원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작으나마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멋진 리더들



새로운 리더들을 위해
-잘 찾을 수 있어요

지바카 병원에 신입 직원이 8명이나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7학년과 6학년이 된 중학생 들입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선 중학생들을 “리더”라고 부르고 있고, 병원은 리더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박종화 활동가

지금 지바카 병원에는 의사 1명, 스태프 2명, 결핵 담당자 1명, 대학생 봉사자 1명과 고등학생 봉사자 2명,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리더 1명, 그리고 새로운 리더 8명과 한국인 활동가인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오전에 출근하여 환자 접수, 약 짓기, 주사 놓기, 간단한 드레싱, 드레싱 보조, 청소 등 많은 일을 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서 병원에도 새로운 리더가 배치되었습니다. 작년 리더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올해는 새로운 리더 8명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작고 배고픈 아이들이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즐겁습니다.”

우선 아주 귀여운 이름을 가진 빠뿌는 7학년 아이로, 작년에는 유치원에서 일하다 올해는 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키는 140cm 정도이지만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어엿한 약국 책임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답게 자주 비스킷을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자 아이들인 란지타와 레사미입니다. 둘 다 6학년으로 드레싱 담당자로 배치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데 아직 수줍어하고 낯설어 하다 보니 비스킷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주게시, 아닐, 아자이, 감레시, 락츠만은 모두 6학년 남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모두 호기심이 많아 제 핸드폰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이들이 즐거워할 영화나 노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작고 배고픈 아이들이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다가도 “비스킷 디지에 (비스킷 주세요)”란 말에 질리기도 하고요. 6학년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교복을 입다가, 한 두 사람씩 교복이 준비가 되면서 중학교 교복으로 갈아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에는 확실히 작아 보였었는데, 중학교 교복을 입으니 더 성숙해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으니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고, 지금까지 현지인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 크게 걱정 할 일도 아닌 듯 했지만, 그래도 담당자로서 스태프에게 리더들이 일 할 때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접수를 받을 때 이름을 영어로 바르게 쓰지 못하여 간간히 환자들과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었고, 동종요법 약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고 처방에도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약이 환자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지각과 결석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스태프들이 모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다 보니, 조레가 끝나고 15분 정도씩 힌디를 영어로 쓰는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하고, 병원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기도 하면서 교육을 시작한지 3주 정도 지난 지금, 아이들이 조금씩 영어로 쓰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지켜보니 접수하며 이름을 쓰는 것에는 아직 서툴지만, 환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환자 차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는 모두 아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안 되는 발음으로 환자와 더디게 소통하면서 접수증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리더가 잘디잘디(빨



리빨리) 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이름, 마을, 나이 등을 묻기에, 좀 천천히 하자고 리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선 항상 한국인이 “빨리빨리”를 외쳤었는데, 어느새 입장이 역전된 모습을 보고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곳에서 처음 약장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건이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쓰거나 옆으로 치워 놓기만 하다 보니, 재고정리가 거의 되지 않아 약병들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약 이름도 잘 보이지 않는 약들이 약장에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약병에서 조금씩 덜어 쓰는 작은 약병도 약에 비해 개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는 10개월 이상 일했던 리더가 여전히 약을 잘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모습도 보았고, 스태프 한 명이 발목 골절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잘못된 약을 먹었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읽기도 서툰데다 약까지 혼잡스럽게 진열되어 있고, 이름마저 확인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약 찾기가 어렵겠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약을 쉽게 찾아 약을 지을 수 있을까?’를 생



진지하게 힌디-영어 쓰기를 공부하는 리더들



“3월 말부터 시작한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약장에 아이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각하다.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일반 업무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스태프들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재고 파악도 하면서 너무 오래 된 약들은 버리고, 이름표가 알아보기 힘든 것은 다시 쓰고, 약장도 청소하고, 약병도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조금씩 덜어 쓰는 약병들도 깨끗이 닦아 이름표를 다시 붙이고 모자라는 것은 새로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바른 약을 찾을까 고민하던 중, 이름표가 색지로 되어있는 약병을 보고 저도 색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덜어 쓰는 약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흰색, 연두색, 주황색 색지로 약 이름을 인쇄하여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표를 붙이다 보니 너무 밀 붙이면 약 이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위쪽으로 옮겨 붙여가면서 약병도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한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약장에 아이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더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몰라보게 깔끔해진 약장을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이름표가 없어지거나 잘 안 보이는 약들을 리더들 스스로 직접 만들어 붙일 수 있게끔 약장 한켠에 가위와 투명 테이프, 색지, 빈 약병들을 준비해놓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 지각과 결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열 살 정도 되면 누구나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도 농사일을 돕고 있는 모습도 보았구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결석과 지각이 급격히 많아집니다. 지금이 밀 수확철이라 하루에 한명 이상은 꼭 결석을 합니다. 지금은 임시방편 삼아 간간히 비스킷으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오면 비스킷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면 100% 출석이라는 아주 높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비스킷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이들이 병원에 나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개선해가며 인도에서 일하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약병 닦고 이름표 붙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약병



마용 분딱, 올란다

- 미오 아저씨의 구호 이야기

최근 3년간 필리핀JTS는 2011년 태풍 센둥, 2013년 태풍 올란다(하이옌) 피해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 재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과정은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는 것 보다 더 고생스럽고 잔혹하다.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JTS에서 활동한 현지인 스텝인 미오(Romeo Suello)씨가 있다. 그의 눈으로 본 필리핀의 재해 현장과 JTS 구호활동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박영일 활동가

Q. 올해로 JTS에서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4년 JTS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알라원 학교(센터에서 걸어서 1시간 반 가량 걸리는 알라원 지역에 JTS지원으로 설립한 학교) 건축 당시 목수로 참여하면서 JTS와 인연이 시작됐다.

Q. 활동 중 JTS와 함께했던 긴급구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2011년 태풍 때 가까운 데오로(Cagayan De Oro)와 일리간(Iligan) 등의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적이 있다.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주방도구와 식료품을 나눠줬었다. 그리고 가까운 데오로에서는 이곳(JTS 트레이닝 센터가 위치한 실리폰 지역)의 고등학생 자원활동가 10명을 섭외해서 구호활동을 펼쳤고, 일리간에서는 현장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를 섭외해서 구호활동을 했었다.

태풍으로 전파된 학교



피난민으로 가득한 버스



Q. 그때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목이 말라 물을 한 통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해서 질서 잡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 리더들 중에서 강력하게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앞세워 나눠줬다. 그 때 담요를 무리해서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아직까지도 허리가 좋지 않다.

Q.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되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것 같다. 보람된 순간은 없었나?

현장에서는 보람을 느낄 틈이 없다. 현장 조사 과정이 쉽지 않다. JTS는 현장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현장에 가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조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피소의 조사 자료와는 다른 경우도 많았다.

Q.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심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서 센터(실리폰)에서 물을 실어 날랐다. 드럼통을 구입해서 물을 채워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현장까지 물을 공급했다.

Q. 그러면 태풍 올란드(하이엔) 당시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송지홍 활동가와 함께 이곳 재난 지역에 파견이 되었다. 사전조사를 위해 방문한 이틀 동안 현지시정은 물도, 음식도 없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둘도 거의 먹지 못했다. 타클로반 지역 밑에 타나우안 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타클로반 만큼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도시전체가 슬픔에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분위기가 혼란스러웠다. 조사가 끝나면 타클로반 시청의 시멘트 바닥에서 사람들과 엉켜 잤던 기억이 있다. 타클로반 주변지역을 조사한 뒤, 이원주 필리핀JTS 대표님에게 피해지역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이 대표님

이 한국에 있어 JTS자원봉사자 이규초씨가 마닐라에서 파견되었고, 타나우완 지역이 구호지역으로 정해졌다.

Q. 그 당시에도 현장 깊숙이 들어가 조사를 했었나요?

그렇다. 재난발생 이틀 뒤에 이곳에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다. 재난 발생 당시에는 모든 진입로가 막혀있어서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주로 버스로 이동했었는데, 현장에 들어가는 버스는 그나마 탑승이 수월하지만, 다시 나올 때는 그 지역 사람들도 마을 밖으로 대피중이라 버스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약탈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항상 긴장을 했었다.

Q.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이원주 대표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현장을 조사해 실제 피해 정도를 보고 했었을 것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에 물품 배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호물품을 균정에 갖다 주면 배분을 하지 않고 시장의 지인들만 나눠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나마 JTS

구호물품을 전달중인 미오씨



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물품 배분을 해서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Q. 이전 물품배분상황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JTS 자원봉사자인 이규초씨와 함께 군청을 찾아가 자세한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구호물자를 나눠줄 때 구호물품 종류와 수량, 물품 배분 장소를 정했다. 그전엔 현지 주민들 집을 방문하여 태풍 당시 상황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피해 정도를 같이 조사했었다. 구호물품이 오기 전에 대기하면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지역 리더와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물품 배분을 마치고 자원봉사자들과



시청 바닥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물품 배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시장과 시장, 군 관계자들이 피해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Q. 지금 JTS는 사마르 섬 마라뭇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 사업이 진행되기 전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나?

학교 재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 기술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JTS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알려주고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 줬다.

Q. 전기도 물도 복구가 안 된 상황이었을 텐데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수도가 다 파손되었기 때문에 씻을 물과 먹을 물을 우물에서 길어 와야 했다. 그 당시는 복구가 진행되기 전이라 전기는 물론이고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사전준비 기간에도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야채 값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고 멀리서 통조림을 구해서 끼니를 해결했다.

Q. 이렇게 힘든 걸 예상했었나?

물론이다.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게 JTS의 역할이고, 나는 JTS에 소속되어 있다. 내 고향이 보홀 히타피 지역인데, 그 곳은 늘 태풍피해가 잦아서 집이 2층 구조이고, 대부분의 집이 강하게 건디는 구조가 아니다(보홀 섬에서 안전한 곳은 관광지화

되어 있고 가난한 주민들은 위험 지역에서 산다). 물론 JTS와 함께 다닌 재난 지역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과거 태풍피해 경험이 있어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 같다.

Q. 그런데 이런 태풍이 실리폰 지역에서 온다면 어떡하나? TV에서 피해상황을 보면 걱정이 되거나 두려운 건 없나?

전혀 없다. 실리폰은 해안지역이 아니라 태풍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 물론 올란다 태풍 당시 강 근처에 있는 사람 몇몇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지만, 이 정도의 자연재해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JTS 활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JTS의 활동은 very nice 하다. 나이가 들어서 이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 버겁다(웃음). JTS는 현장 조사를 너무 까다롭게 진행해서 힘들다. 하지만 그게 JTS 원칙인걸 알고 있고, 나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JTS원칙을 따를 것이다.

인슐레이션과 와이어 메시 시공



마라붓 조기 복구 사업, 그리고 4개월

- Tindok Marabut!(일어나라 마라붓!)

벌써 이곳에 온지도 벌써 4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태풍 올란다(하이엔) 이후 바다를 건너서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가득했던 이곳에서도 새로운 “싹”들이 자라나고 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오성근 활동가

필리핀에 기상 관측이래 가장 강한 태풍이 휩쓸고 갔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당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JTS 지부에서 애 쓰겠다'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이곳 마라뭇 파견이 급작스레 결정되었고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필리핀에 도착하고 얼마 후, 화물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이곳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보이는 집이 없었다. 구호품으로 받은 천막으로 하늘을 가렸을 뿐인 허술한 지붕의 임시 가옥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식수는 ICRC(국제 적십자사)에서 저녁마다 물차로 배달해주는 물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산은 마치 부러진 성냥개비들이 쌓여있는 것 같았다. 태풍에 가지가 다 부러지고 앙상한 줄기뿐인 나무들만 남아있었다.

즉시 학교를 둘러보았다. 마치 분쟁 지역에서 폭격을 맞은 건물처럼 벽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실에, 천막을 씌우거나 구호단체에서 지원받은 임시 텐트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JTS는 태풍 이후 타나우안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마치고, 수차례에 걸친 피해지역 조사 작업을 통해 태풍 이전에도 가장 가난하였으며,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외부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마라뭇 시(Municipality of Marabut)를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정부, 교육청과 MOA를 체결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JTS는 마라뭇 관내 15개 초등학교 중 13개 학교의 총 56개 교실에 대해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 이전에 있었던 총 131개 교실 중, 태풍 이후에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12개 교실과 전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교실을 제외하면 수리할 수 있는 모든 교실을 JTS가 수리하고 있다.

수리작업은 학교별로 학생 수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2차로 나눠서 진행하며, 1차에는 5개 학교 교실 46칸, 2차에는 8개 학교 교실 10칸을 복구하고 있다.

학 교 명	철제 트러스	목재 트러스	계
Marabut Central 초등학교	15	0	15
Osmena 초등학교	6	9	15
Caluwayan 초등학교	3	3	6
Legaspi 초등학교	0	7	7
Pinamitinan 초등학교	0	3	3
	24	22	46

〈마라뭇 조기 복구 1차 사업〉

학 교 명	철제 트러스	목재 트러스	계
Tag-alag 초등학교	2	0	2
Tinabanan 초등학교	1	0	1
Mabuhay 초등학교	0	1	1
Canyoyo 초등학교	0	1	1
Logero 초등학교	0	2	2
Pinalangga 초등학교	0	1	1
Amambucale 초등학교	1	0	1
Malobago 초등학교	0	1	1
	4	6	10

〈마라뭇 조기 복구 2차 사업〉

3월 말 방학 이전에는 최대한 지붕 수리작업에 집중하였다. 다른 곳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인슐레이션(은박 롤 단열재)과 와이어 메시(철망)를 사용하여 지붕 복사업을 차단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땀뻑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작업한 끝에 방학 이전에 이미 많은 교실의 지붕 복구까지 완료되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복구사업에 있어 JTS는 교실의 내구성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올란드(하이엔)보다 더 강한 태풍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JTS가 지원한 학교만큼은 태풍에 견디어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철근과 목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3mm 정도의 지붕재를 쓰는데 반해, JTS에서는 마닐라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두께 5mm 튼튼한 지붕재를 쓰고 있다. 태풍 피해 이후,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학교 건축 기준을 지붕재 두께 4mm에서 5mm로 상향시켰는데, 아마도 그 최초 적용 사례 중 하나가 이번 JTS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3월말 방학이 시작될 즈음부터는 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학기 중에는 수업에 방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방학을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천정 작업을 하면서 개미 방지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 목자재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철근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반면, 이 지역에서는 개미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모든 목자재에 “솔리그넘”이라는 개미 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개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진행하였다.

정작업과 문/창문 작업, 페인트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6월 초, 필리핀의 신 학년 입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새로운 교실을 마주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JTS의 목표이다.

어느 날 문득, 오며 가며 무심히 지나쳤던 산을 바라보았다. 푸른빛이 하나도 없던 민둥산도 이제 제법 푸르러지고 있다. 태풍이 핏줄이 간 그 척박했던 땅에도 그렇게 새싹들이 다시 움트고 자라나고 있다.

시공 후 교실에서 수업하는 아이들



솔리그넘을 칠한 천정 틀의 모습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

- 느리지만 멈추지만 앓는다면 문제없다!!!

미얀마 생활을 시작하고 한창 익숙지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신규 활동가들의 행복한 미얀마 활동 이야기, 들어주시길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금시열 활동가

“어젯밤에 전기가 나가서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자는데 개미가 자꾸 물어서 한숨도 못 잤다.”, “새벽부터 노랫소리가 찌렁찌렁하게 들리는걸 보니 결혼식이 있었나보다. 덕분에 새벽부터 잠이 깼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난밤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미얀마 JTS입니다.

미얀마 JTS에는 신규 활동가 3명과 이제 활동을 마치고 4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2명의 기존 활동가가 있습니다. 기존 활동가들이 돌아가고 나면 신규 활동가들만 남게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아직은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미얀마에서의 생활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마을주민들과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마을의 요청을 받아 현장 답사를 가거나,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보건 사업과 학교 기자재 지원 사업에 관해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하러 마을에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전에는 늘 기존 활동가와 현지인 자원봉사자인 쁘쁘가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고, 신규 활동가들은 회의를 참관하는 정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 내용에 대해서 기존 활동가인 김성현 활동가나 이모아 활동가가 다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조금은 겁이 나는 상황이 닥칩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다시 논의가 진행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회의 하루 전. 다들 짧은 미얀마어 실력으로 사전을 찾아가며 종이에 하고 싶은 말을 적고, 때로는 쁘쁘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



는 학생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장시간 버스를 타고 다들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처진 몸을 이끌고 정거장에 내리면, 언제나 오토바이를 타고 마중 나와서 기다려 주는 동네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향의 동네 아저씨를 만나듯이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을에서 한 시간 가까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것이 귀찮을 텐데도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아저씨를 보면,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주민들이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의 미얀마어 선생님이자 친구들인 마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늘 “밥 먹었니?”, “학교 안 갔니?”라고 물어보고, 아이들도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하지만 도통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하고 “나 미얀마어 조금 말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더듬거리며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손짓을 해가며 똑같은 단어를 수십 번 말하고, 저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야 조금이나마 대화가 되는 상황인데도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인상한 번 찡그리지 않고 웃으며 끊임없이 이야기 해줍니다. 이런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수많은 걱정과 불만이 가득 쌓여있는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의 전날 준비한 종이를 보고 유창하게 말하고 싶지만 마음만 앞설 뿐, 이야기를 100%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짓과 다양한 음향효과를 추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어느새 주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짧은 미얀마어로 “날레엘라?(이해하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주민들은 “날레레(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끝까지 경청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고 있는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가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더듬거리는 이야기를 알아서 해석해가며 듣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들 사이에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JTS의 활동가들은 느리지만 천천히, 수많은 외국 NGO중 하나, 돈으로 뭐든 똑딱 만들어서 주고 가버리는 NGO가 아닌, 훗날 주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JTS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리다고 조금해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서는 것을 경계하면서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이곳 미얀마에서 기원하겠습니다.



삐마이 당일 사무실 옆 학교 선생님(사무실 임대인)과 찍은 사진



싸바이디, 삐마이!

- 신규사업을 위한 답사, 그리고 라오스의 새해 삐마이

뜨거운 햇볕이 쉼 없이 내리쬐는 수쿠마. 그 곳에 JTS가 지원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콕농부아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무더위와 고된 노동으로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늦은 오후까지 공사에 열심인 덕에 콕농부아 학교는 현재 벽체 공사까지 마무리되어 조금씩 학교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박용대 활동가



엄마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일하는 현장



엄마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일하는 현장



답사 가는 도로의 흙탕물



답사 차 간 학교와 학생의 사진

라오스의 명절 설인 ‘삐마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진행 중인 공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삐마이’가 되면 관공서, 회사와 가게들은 문을 닫고 가족, 친척, 이웃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데, 이 ‘삐마이’ 기간이 거의 10일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손을 돕고자 쿡농부아 마을의 ‘엄마’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를 개고 모래와 자갈을 섞어 비비고 리어카에 실어 나르고... 작은 몸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 공사장으로 달려온 아이들을 번쩍 안아 들며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덧붙여서요.

그리고 라오스 지부 인원 3명이 모두 모인 후 첫 지역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쿡농부아 마을의 학교 건축과 함께 추가로 진행을 할 수질 개선 사업과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할 지역을 찾기 위한 답사였습니다.

하필 답사하는 날이 비가 온 직후라 길이 온통 흙탕물로 되어있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사 차 들어간 마을과 학교에서 한국인을 맞이해주는 어린이들의 미소에서 그 간의 어려움은 금방 잊혔습니다.

한 마을은 마을 전체 수도시설이 단 3개밖에 없어 현저히 부족한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물 사용량은 사는 데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수 있지만, 마을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공부 할 기회가 없으니,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학교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답사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답사를 진행한 후 라오스지부에서는 ‘삐마이’ 기간 동안의 사업진행에 대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기획 회의와 이번엔 활동가들이 새로 모였으니 라오스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삐마이’ 주간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삐마이’ 당일, 사무실 옆 학교의 선생님께서 라오스 풍습을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자청해주셔서 함께 8개의 절에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절이 모두 특색이 있어서 보는 내내 흥

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불상에 물을 뿌리며 새해소원을 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 아주 큰 불상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문태훈 활동가는 “저 불상에 어떻게 물을 뿌리는 게 좋을까?”라고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동하는 골목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노는 바람에 모두들 온통 젖었습니다.

삐마이 중 즐기는 물놀이



일주일 내내 지치지 않고 물놀이와 노래를 하며 명절을 보내는 모습에서 라오스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이웃 간의 우애를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활동 소감 : 답사 및 삐마이 체험 후

- 배혜정 : 현재 학교 건축이 진행 중인 록농부야 마을에 왔다갔다 하느라 다른 마을들을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수치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마을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제 눈에는 이것도 저것도 불편해 보이는 것 투성이었지만, ‘이것도 괜찮다, 그것도 쓸 만하다, 단지 학교가 없으니 학교 짓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삐마이 : 언제나 음악과 춤과 술이 빠지지 않는 라오스에서 그 세 가지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라오의 새해맞이, ‘삐마이!’ 아, 거기에 덧붙여 ‘물’까지. 물을 쓰고, 붓고, 던지고, 뿌리는 사람도, 그 물을 맞고 흠뻑 젖은 사람도 한바탕 크게 웃으며 서로 새해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입니다. 남뉘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놀이판, 이렇게 흥겹고 정겨운 새해맞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 **문태훈** : JTS가 작년부터 라오스에 새로 진출한 후, 활동가들은 지원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JTS는 그 중 콕농부아 마을과 인연을 맺고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파삭주 수쿠마군 (Champasak Province, Sukuma District) 일대의 교육시설과 급수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수쿠마 군의 여러 마을 중 도로나 전기가 닿는 곳은 역시 형편이 나아보였지만 일부는 아직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이웃마을로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답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가 도로가 닿지 않는 산간마을 상황을 저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안내받은 곳은 대체로 읍내와 가깝거나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형편이 낫다고 해도 함석지붕 아래 흙바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기회가 전혀 없는 곳보다는 나아지만 눈에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박용대** : 저는 라오스 지부에 도착하고 날씨조차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주에 답사를 다녀서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쫓아만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학교를 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할 거라는 생각에 들뜨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빠마이’에서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말이나 글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체류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빠마이’ 참가를 계기로 라오스 사람들이 정겹게 느껴져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JTS 봉사자들이 거제도 애광원 거주인들과 함께 경주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행사에는 JTS 이사장 법륜 스님도 함께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두에게 직접 우리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제도 애광원 경주 봄 나들이

2003년 여름, 태풍 매미로 거제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애광원 거주인들을 위해 JTS가 식수를 긴급 지원한 것으로 JTS와 거제도 애광원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에는 외출이 어려운 애광원 거주인들을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JTS 봉사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인들의 외출을 돕는 나들이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멀리 경주 까지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JTS 활동가들과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열왕릉을 돌아보고 경주 교촌 마을에서 대구 정토회 전병찬 씨의 후원으로 마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최씨 고택, 월정교, 반월성, 안압지 등을 법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JTS와 애광원 선생님들은 선물을 교환하며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JTS의 국내활동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ndia 인도



서로 물감을 묻히며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

1. 인도 큰 축제인 홀리 행사

지난 3월 15일은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홀리'가 있었습니다. 인도 동게스와리 마을에서는 마을별 14개 유치원과 수자타아카데미 본교, 아자드비가 분교에서 홀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사탕도 먹고,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서로 얼굴에 묻히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암베드카르에 헌화하고 있는 인도 교사들

2.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일 행사

4월 14일은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일이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불가촉천민 철폐운동과 인도 헌법을 기초한 인도의 헌신적인 참여인권운동가입니다. 마을별 14개 유치원과 수자타에서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 중에 찰칵!

3. 우리 마을은 우리가 깨끗하게 할거예요!

동게스와리 마을 14개 유치원에서 “함까랑게(힌디로 제가 할게요)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동게스와리 마을의 모든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 한국인 활동가가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유치원과 마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끝낸 후, 줄을 서서 함께 손을 씻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함까랑게 운동”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양식을 가져가는 엄마와 아이들

4. 저체중아 영양식 지원

지난 2~3월 동안 저체중아 조사를 끝내고 드디어 영양식을 지원해야 할 아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급해야 할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도 다녀오고, 쌀 8kg과 달(콩) 4kg 썩을 포장하기 위해 학생, 한국 활동가, 학교 선생님들이 힘써주셨습니다.

드디어 영양식을 지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쌀 8kg, 달(콩) 4kg, 머스타드 오일 1L, 비타민 시럽을 주고 우유를 먹는 유아들은 달(콩)대신 분유를 지급합니다. 병원 정문에서는 쿠폰을 확인하고 후문에서는 영양식을 지급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까지 온 가족이 오니 병원이 시끌벅적하고 한 짐씩 가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즐거워 보입니다.



자그디스푸르 마을의 배수로 수리단

5. 함까랑게 운동(마을 수리단)

현재 10개 마을에서 수리단을 진행 중입니다. 우물 덮개와 휴식공간을 만드는 수리단을 주로 하였고, 길에 벽돌을 깔아서 도로를 만드는 수리단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수리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리단을 통해 마을에 도로가 놓이고 배수로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Philippine 필리핀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

1. 만타부 초등학교 첫 졸업식

지난 3월 26일 만타부 초등학교에서 지방정부 교육 공무원과 교직원, 학부모,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만타부 초등학교는 그동안 지방 정부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소극적인 교사 파견으로 인해 정규 학교로 승인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정규 학교로 등록하여 약 8년 만에 첫 졸업식을 연 셈입니다. 공연과 연설,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학생,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마무리 페인트칠

2. 알라원 다리 완공

지난 3월 12일에 알라원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태풍 파블로의 영향으로 다리 주변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케이블이 손상되어 끊어졌던 다리를 복구하기로 했는데, 작년 4월 마을 주민 단합대회를 시작으로 다리공사가 시작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페인트칠을 마지막으로 다리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배명숙 활동가 (뒷줄 가운데)

3. 다물록 졸업여행

JTS가 다물록 군에 지원한 13개 학교 중, 졸업생을 배출하는 6개 학교 졸업식이 3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4년간 필리핀JTS에서 활동한 배명숙 활동가는 지난 2년 동안 다물록의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학교들의 졸업식에 참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에 방문한 JTS 활동가들

4. 마늘로 풀티치 학교 건축 후보지 답사

3월 6일, 7일 양일간 마늘로 풀티치 군의 학교 건축 후보지인 부그나, 어퍼, 키한아이, 콘솔라시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세 번째 방문이며, 이원주 필리핀JTS 대표, 이규초, 이재곤, 김희자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마늘로 풀티치 군의 학교 건축 대상지 및 규모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학생 정보 및 등급 환경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물록 시 보건소

5. 다물록 프로젝트 지역 모니터링

지난 4월 11일 시설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다물록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마카파리 국립 고등학교와 다물록 시 보건소 시설 사용을 점검했습니다.

6. 박지나, 이원주 대표 마라톤 현장 방문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한국JTS 박지나 대표와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가 지난해 태풍 하이옌 피해 조기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마라뒀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마라뒀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파괴된 5개 학교 45칸 교실의 조기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yanmar 미얀마



칫솔 여기 있어요~

1. 마을 보건 위생 프로젝트

짜웅공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마을을 중심으로, 어린이 치아건강 관리와 마을 안 쓰레기 줍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아건강 교육자료와 포스터가 준비되었고, 대상 마을의 주민, 학교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6월이 되면 마을 보건위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아 관리와 마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2. 교육 기자재 지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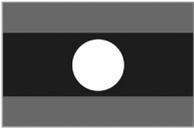
JTS와 사업을 진행하였던 마을을 중심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교육 기자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마을별로 수요조사와 회의를 통해서 JTS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마을 학교를 위해서 마을 목수와 주민들이 직접 교육 기자재를 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에 엄청 좋은 기자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류수 학교 모습

3. 사류수 학교 건축 진행 중

사류수 학교가 이제는 어느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학교들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사류수 학교 학생들이 개학할 때에는 새로운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기술자들이 모두 합심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os 라오스



방문한 마을 학교에서 기초정보 수집중인 활동가들

1. 급수시설 지원 및 학교 건축 예정지역 5개 마을 답사

2013년 12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곡농부아 마을학교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지고 우기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닥을 높이기 위해 흙을 운반해와 쌓고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벽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학교도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겠지요. 라오스의 겨울도 어느새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땀땀 구슬땀을 흘려가며 공사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모니터링 중인 박용대 활동가(사진 왼쪽)

2. 박용대 활동가 신규 파견

라오스 사업장에 신규로 파견된 박용대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박용대 활동가는 그동안 한국 본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여 진행해왔고, 지난 3월 말 라오스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재 회계와 신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한국인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에도 활기가 더해진 모습입니다. 교육에 대한 현지인의 높은 관심에도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라오스의 초등교육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벽체공사가 완료된 학교의 모습

3. 곡농부아 마을학교 건축 진행 소식

작년 12월 착공한 이래 곡농부아 마을 학교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바닥공사가 마무리되고, 벽체 공사까지 완료되어 점점 학교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무더위와 때때로 내리는 강한 비바람에도 공사 현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곧 튼튼하고 예쁜 학교가 지어져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월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이은숙, 김정민, 박종화, 권도영, 장준태
필리핀	민다나오 : 이원주, 이규초, 송지홍, 이재곤, 김희자, 박영일 마라뭇 : 오성근, 임희성, 원석환
캄보디아	정철상
미얀마	권민성, 이대원, 금시열
라오스	배혜정, 문태훈,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날씨가 점점 차가워 지는데
작은 성의밖에 보이지 못해 늘 미안합니다.
-윤미옥-

막내딸이 결혼합니다.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한양순-

두 돌을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를 희망하며.
-정선우-

친정아버님의 두번째 기일을 맞이하여
작은 마음을 표합니다.
-이영희-

소롱&윤경 결혼기념 ^^
-엄윤경-

어머니정진순85세생일기념
-하은이-

고선아의생일을맞아평화를기원합니다^^
-홍진숙-

김태화(생일기념) 이름으로 후원합니다.
-백경화-

현진스님 생신축하금후원
-김진화-

김태화(생일기념) 이름으로 후원합니다.
-백경화-

현진스님 생신축하금후원
-김진화-

귀여운 김다예 첫 돌입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선우-

故 윤여훈아버지의 극락왕생을발원하며 윤여훈아버지
의 공덕으로 회향합니다
-윤지수-

김형우, 전상미 결혼축하
-문영실-

황호관 영가님 극락왕생 발원
-황인영-

조고은백일기념
-조성집-

박준원 중학교입학기념
-박지열-

함보은아기 첫돌축하
-이혜림-

부처님의 가르침받고 바른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김경란-

특별후원금 (2014. 2. 01. ~ 2014. 3. 31.)

2014년 2월 북한결연

고경녀	50,000
곽도순	30,000
권영숙	100,000
김경란	70,000
김경미	30,000
김라옥	100,000
김명진	50,000
김민호	10,000
김범석	30,000
김상수	30,000
김순향	61,000
김애숙	100,000
김인숙	20,000
김재춘	100,000
김정윤	500,000
김정현	3,000
김현숙	30,000
김형식	10,000
김해민	10,000
노은희	460,000
목인병(김홍임)	90,000
문강수권원	3893700
문경숙	10,000
문미현	50,000
문지애	70,000
박별남	20,000
박수영	100,000
박영미	100,000
박원민	10,000
박준	149,000
박중하	10,000
박희광	300,000
손민혁	13,000
손윤희	10,000
신화진	30,000
심창수	10,000
염윤경	220,000
여미숙	50,000
위정호	30,000
유애경	120,000
유옥재	10,000
이서영	60,000
이영희	130000
이정임	20,000
이진일	5,000
이명호	120000
임근영	1,300,000
장성옥	20,000
전재영	10,000
전화영	50,000
정연현	50,000
정원우	200,000
정지은	50,000
조성진	1,000,000
진옥희	20,000
최미대자	41,650
최순희	120,000
최완정	10,000
최은영	10,000

최은영	10,000
하지민	10,000
한양순	100,000
허대영	10,000
황인영	50,000

인도 모자보건

김민호	10,000
김성남	220,000
김인숙	20,000
김정미	200,000
김정윤	500,000
문경숙	10,000
박별남	20,000
백광현	1,000,000
심창수	10,000
염윤경	220000
이동원	50,000
이영희	30,000
이서영	90,000
이지영	10,000
임성희	10,000
전화영	50,000
정연현	50,000
정윤찬	50,000
정현옥	60,000
최완정	10,000
하지민	10,000
하효남	3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순옥	100,000
곽영술	106,100
김복수	50,000
김성진	1,000,000
김상옥	40,000
김선숙	31,830
김선희	70,000
김승림	53,050
김수남	976,120
김연숙	20,000
김혜경	106,400
김희경	50,000
나희연	100,000
문경숙	10,000
민덕홍	742,700
박동호	106,100
박영애	53,050
박영주	106,100
박영희	30,000
박중은	53,050
박진옥	20,000
방준석	100,000
백영호	1,000,000
서현옥	20,000
성지순(레팀)	3,078,720
손정현	20,000
심창수	10,000
염윤경	230,000
오영세	5,000

오영주	106,100
유옥재	10,000
윤광자	106,100
윤자수	50,000
이광준	10,000
이병재	1,061,000
이선옥	10,000
이영희	30,000
이주형	10,000
이창숙	30,000
이화승	530,500
익명호	180,000
임란희	50,000
전병찬	1,300,000
전화영	50,000
조성진	1,000,000
죽사신도일동	650,000
청파청년회	20,000
최란	53,050
코비즈건축사행협동조합	9,000,000
허미숙	212,200
한애경	100,000
한양순	200,000
홍문표	21,220

필리핀

김인숙	20,000
김희자	339,200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1,078,350
문경수권원	776,010
박수자	120,000
송유구	20,000
신동현	90,000
심창수	10,000
염윤경	230,000
오상근	339,200
원석환	339,200
이윤경	30,000
이재근	339,200
이재필	50,000
전향태	250,000
전화영	50,000
정지은	50,000
진현수	20,000
하지민	10,000
황은숙	30,000

JTS 전체사업

간지혜어	149,810
강경희	31,000
고인경	50,000
공경향	184,000
공유경	45,900
곽세훈	30,000
교사정토회워크	112,000
권교중	20,000
권민성	678400

권순호	200,000
권정희	100,000
권주현	100,000
권현숙	200,000
금시열	339,200
김경미	50,000
김광일	67,130
김금주분당	5,000
김명진	50,000
김민혁	100,000
김민호	10,000
김민호	1,000,000
김상수	1,000,000
김성남	50,000
김수영	10,000
김수정	100,000
김수현	1,000,000
김영경	50,000
김영선	200,000
김용훈	208,000
김은경	1,000,000
김인숙	20,000
김일영	100,000
김일환	3,000,000
김정옥	100,000
김주연	30,000
김준희	10,000
김진숙	150,000
김재은	15,000
김준희	150,000
김현미	500,000
김현지	1,000,000
나중용	100,000
나현승	10,000
남경현	100,000
남미애	1,500,000
남유범등 녹색장터판매	금
금	50,000
류수진	150,000
류현주	50,000
마기영	300,000
문영실	1,000,000
문정환	300,000
문형순	300,000
박미혜	100,000
박범근	50,000
박수영	100,000
박숙행	400,000
박영구	200,000
박원민	10,000
박용대	339,200
박원석	50,000
박윤정	200,000
박종현(재현상사)	100,000
박지열	100,000
박진수	10,000
박진수	10,000
박희희	20,000
박현숙	50,000
배혜정	339,200
백승분	10,000

백인순	330,000
백준숙	50,000
배두호(말하본점)	28,650
서대문북불대(해)반반	160,000
서미옥	10,000
서석근	400,000
서연수	28,000
서용원	57160
서태원	82020
성태현	50,000
성호상	200,000
손경	50,000
손옥순	200,000
신명철	100,000
신학철	71,000
심창수	10,000
심태숙	50,000
안경자	50,000
안탁기	90,000
안순금	20,000
알기	100000
양동산	50,000
양성희	50,000
양정은	200,000
여머니극락왕생하소서	50,000
엄애순	100,000
엄윤경	222,000
여유량	200,000
영기(황종택조)	100,000
오대환	16,000
오미경	100,000
오영세	100,000
유민정	100,000
유옥재	40000
유재민	50,000
윤영실	1,000,000
윤성진	120,000
윤옥희	70,000
이규갑	500,000
이대원	339,200
이동원	50,000
이영희	300,000
이신화	50,000
이승혁	30,000
이양옥	1,000,000
이영희	10,000
이유진	230,000
이은규	100,000
이진호	50,000
이종희	30,000
이태문	100,000

장성혁	172,000
장세영	20,000
장순석	10,000
전미리	30,000
전재영	30,000
장다령	30,000
장수미	20,000
장수영	50,000
장순이	200,000
정인숙	100,000
장재민	20,000
정도희	200,000
정원채	200,000
조계량	1,000,000
조계량	565,000
조남은(차춘자)	30,000
조옥현	100,000
조혜은	30,000
주영자	10,000
주주미	70,160
중소기업은행(서초남지점)	600,000
진승희	48,500
최경학	20,000
최경호	20,000
최경희	20,000
최광규	20,000
최명숙	100,000
최수영	20,000
최수화	200,000
최수희	200,000
최정례	1,000,000
특별후원금	100,000
허재남	500,000
허혜호	200,000
하지현	100,000
한신화	20,000
한승협	300,000
한승협	100,000
한지민(씨팬)	1,000,000
하원진	30,000
홍순연	100,000
홍승환	1,000,000
홍지우	100,000
환회사	300,000
황두현	100,000
황원선	100,000
황인영	100,000
황재우	500,000
황정숙	40,000
(주)다우실리콘	1,000,000
고성열	100,000
권용배	30,000
김경란	20,000
김기호	10,000
김명수	10,000
김미현	20,000
김숙경	50,000
김민아	20,000

필리핀금구호



김연화	50,000
김영경	30,000
김영순	20,000
김진환	50,000
김찬우	30,000
김해민	10,000
김해영	30,000
김호균	10,000
김호상	100,000
김화연	30,000
남현	10,000
노진명	10,000
박도선	50,000
박정현	30,000
박현숙	50,000
박현영	10,000
박현주	20,000
서동욱	30,000
송순아	10,000
신순기	100,000
신현희	100,000
안현주	10,000
양수영	30,000
우임숙	10,000
원미혜	30,000
유경희	30,000
유중호	20,000
이광렬	100,000
이동훈	30,000
이미숙	50,000
이범인	30,000
이병록	30,000
이병희	30,000
이서영	10,000
이영실	10,000
이옥연	10,000
이은식	50,000
이정옥	10,000
임현화	20,000
임희경	10,000
장미진	20,000
장석출	10,000
전덕희	20,000
정주화	30,000
지현영	30,000
차경순	10,000
최배식	50,000
최병용회계사무소	
	50,000
최상숙	50,000
최재경	10,000
필리핀에워로보호를	
	88,888
한유미	10,000
황은미	20,000
후한의원	100,000

2014년 3월
부한결연

6013662787100,000	
강경덕	10,000

강병익	20,000
강희숙	300,000
강희원	100,000
김경미	50,000
김경미	30,000
김라옥	100,000
김성희	10,000
김순호	100,000
김재춘	150,000
김경미	100,000
김지아	50,000
김태선	100,000
목안방(김홍일)	50,000
무기명	50,000
문경숙	10,000
민평협	140,061
박동민	30,000
박별님	15,000
박완임	10,000
박외자	100,000
박희달	100,000
백경화	50,000
서형원	2,000,000
송호철	500,000
신재영	20,000
심은아	30,000
우윤아	100,000
위정호	30,000
유덕원	40,000
윤미옥	300,000
이상현	18,670
이서영	65,000
이영식	50,000
이진일	20,000
이혜림	100,000
정호숙	50,000
정만주	200,000
정의호	10,000
정혜경	20,000
재갈진	22,000
조은정	30,000
차정원	100,000
최은영	10,000
최은영	10,000
탁윤태	30,000
하은이	850,000
한진아	30,000
허대영	10,000
홍진숙	30,000
황인영	10,000
NHNNEXT	100,000

인도 모자보건

강경덕	10,000
강병익	20,000
김나윤	3,000
김태영	10,000
무기명	30,000
무니	30,000
문경숙	10,000

박별님	15,000
박완임	10,000
박외자	100,000
박희달	10,000
백경화	50,000
신재영	10,000
신화진	20,000
웹브랜드	100,000
윤명실	140,000
이광준	10,000
이광준	10,000
이서영	60,850
임성희	10,000
정혜경	20,000
허수호	10,000
황인영	10,000
NHNNEXT	100,000

인도 및 제3세계

6013662787100,000	
강경덕	10,000
강민정	8,450
강병익	20,000
강영애	20,000
고성열	50,000
곽도순	15,000
김성희	10,000
김영호	30,000
김주빈	100,000
꿈나무장학금	200,000
동국대재이집	76,960
무기명	20,000
문경숙	10,000
박민주	72,200
박외자	100,000
박윤숙	200,000
박희달	10,000
백경화	50,000
백승보	50,000
소진호	30,000
신재영	10,000
웹브랜드	200,000
유덕원	20,000
이서영	25,000
이승희	1,000,000
이주형	10,000
장경숙	100,000
장성호	200,000
장경주	100,000
정명희	200,000
정혜경	20,000
조장규	1,000,000
조정례	175,000
천형준	30,000
한동규	5,000
한은경	600,000
황인영	10,000
NHNNEXT	100,000

필리핀

강경덕	10,000
강병익	20,000
고성열	50,000
곽도순	15,000
김민우	10,000
무기명	50,000
박영미	5,000,000
박외자	100,000
백경화	50,000
신재영	10,000
웹브랜드	100,000
유덕원	20,000
이서영	30,000
이윤식	50,000
이윤정	30,000
이진일	5,000
전향태	250,000
정혜경	20,000
황인영	10,000
NHNNEXT	100,000

JTS 전체사업

(주)교부문고	100,000
강경덕	10,000
강병익	20,000
강인숙	10,000
공영표	100,000
곽명순	50,000
권명숙	20,000
권은하	300,000
권태숙	5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금식	10,000
김경미	50,000
김계화	30,000
김금주	5,000
김동재	500,000
김영숙	41,640
김미영	1,000,000
김미옥	71,530
김미향	50,000
김민구김준우박향연	
	20,000
김민준	400,000
김선복	50,000
김선화	100,000
김소영	60,000
김소혜	500,000
김영준	700,000
김영화	50,000
김정자	300,000
김정화	50,000
김주현	109,390
김춘봉	35,000
김춘희	100,000
김태순	60,000
김한숙	33,000
김혜련	19,810
김홍철	50,000
니경원	100,000
니경주	100,000

남미애	800,000
이재훈	16,000
도연기마	50,000
만옥스님	100,000
문금숙영가	10,000
문정재	50,000
문태훈	3,859,200
박길연	30,000
박노을	54,890
박미경	100,000
박미정	37,930
박보정	80,000
박선희	500,000
박수영	100,000
박외자	100,000
박용대	200,000
박정순	200,000
박진수	10,000
박현숙	100,000
배정향	100,000
배두호황본점	44,780
보성보리	330,000
서미옥	10,000
서연수	28,020
서용원	50,000
서태원	50,000
소진호	30,000
손영수	100,000
손윤희	13,621
송용재	59830
수도암	150,000
수미정	10,000
신보경	20,000
신선영	126,440
신용남	100,000
심명성	50,000
말1	50,000
양승종	500,000
양윤식	300,000
여경진	100,000
오영세	30,000
왕석범	50,000
유덕원	20,000
유명수	200,000
유승자	150,000
유욱재	30,000
윤희찬	370,000
윤미옥	50,000
윤여훈 교인	25,000
윤영미	38,000
이다겸	500,000
이대용	50,000
이말보	100,000
이명숙	11,814
이상방	100,000
이상현	41,160
이선희	50,000
이성희	100,000
이승경	22,150
이신혜	50,000
이윤석	50,000
이윤희	100,000

이민주	31,140
이재훈	1,000,000
이정구	10,000
이정호	50,000
이창욱	20,000
이현숙	36,830
이혜경	80,000
이희성	30,000
임영광	1,140,000
임영희	100,000
임진아	10,000
임한태이인숙부부	
	1,000,000
임형섭	10,000
진순석	10,000
장용	100,000
장지태영가	10,000
전현이	150,000
전희옥	1,000,000
정동희	30,000
정두영	50,000
정옥순	5,000
장인숙	100,000
정향숙	30,240
정혜경	20,000
정혜영	100,000
정희재	30,000
조남은차춘자	60,000
조성집	100,000
조소현	200,000
조원희	120,000
조재희	100,000
조해조	100,000
중국에서	30,000
차영민(이편한안경원)	
	63,000
차진희	100,000
천선태영가	1,000,000
천윤미	30,000
최모흔	500,000
최문숙	30,000
최우근	27,310
최윤경	30,000
최은영	10,000
최정자	100,000
최창숙	500,000
최효정	70,000
한경림	104,643
한지민씨편	1,000,000
허원진	30,000
호남차과기공연합회	
	300,000
홍숙이	50,000
황인영	10,000
황정숙	20,000
후원금	100,000
NHNNEXT	88,000

해외JTS 후원금 (2014. 2. 01. ~ 2014. 3. 31.)

미국 J T S 201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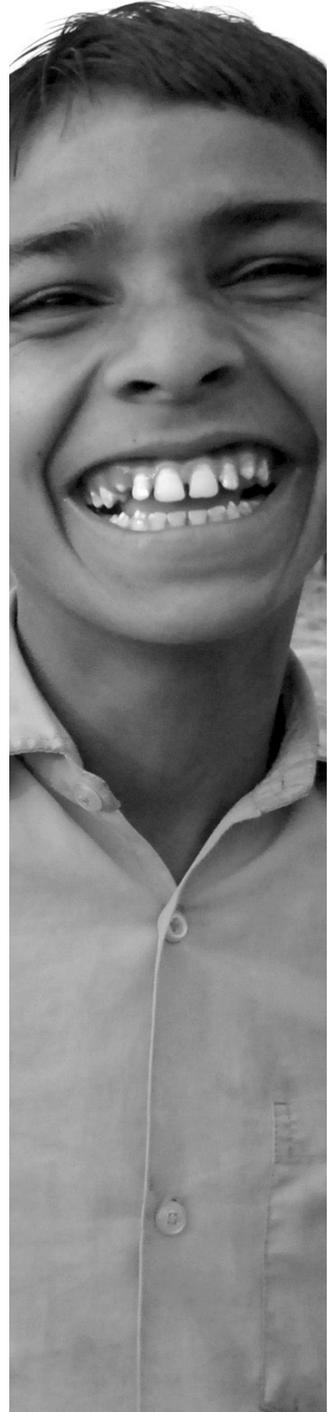
후원자	후원금
김원태	\$30.00
그레이트스 안	\$40.00
김미경	\$200.00
김세희	\$50.00
김순미	\$50.00
김순미	\$50.00
김윤진	\$100.00
도성희	\$10,000.00
라스베가스열린법회	\$789.00
마이클 양	\$31.00
무주상	\$300.00
박경배	\$80.00
백은주	\$50.00
수잔 관	\$100.00
영 마카론 펀드	\$10,000.00
유승묵	\$20.00
이귀염	\$100.00
이노숙	\$50.00
이동근	\$30.00
이동영	\$400.00
임선희	\$50.00
전정애	\$30.00
장제니	\$100.00
최만성	\$20.00
최수영	\$60.00
Alan W. Fong/Seon	
Y. Cha	\$50.00
Diana Jeong	\$20.00

Hui Yong Ratliff	\$20.00
Jung Deong Oh	
Kyung J Kim	\$5.00
Microsoft	\$200.00
Yong S Suh	\$100.00

미국 J T S 2014년 3월

후원자	후원금
김미경	\$150.00
김세희	\$50.00
김순미	\$50.00
김순미	\$50.00
김지현	\$30.00
김향남	\$100.00
김효경	\$20.00
류지나	\$100.00
마이클 양	\$31.00
무주상	\$400.00
무주상	\$300.00
무주상	\$110.00
박경배	\$120.00
박숙현	\$50.00
수잔 관	\$100.00
시에틀정토회원	\$111.00
워싱턴정토회원	\$300.00
유승묵	\$20.00
윤영수	\$150.00
이귀염	\$100.00

이동영	\$200.00
이동영	\$200.00
이우룡/이노숙	\$50.00
임선희	\$50.00
전정애	\$30.00
최만성	\$20.00
한혜진	\$100.00
홍희선	\$100.00
Andrew Joanne Kim	\$200.00
Chong Sik Cho	\$50.00
DIANA JEONG	\$20.00
Dianne Park	\$200.00
JAE HWAN HWANG	\$100.00
Joe H Ha	\$280.00
KYUNG J KIM	\$5.00
Linda Davis	\$100.00
Network good	\$100.00
Sean J Kim	\$500.00
SEUNGYONG PARK	\$30.00
SEUNGYONG PARK	\$3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4. 02. 01. ~ 2014. 03.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제

거제법당 19,180 거제중앙초6-4 86,400 원마트 15,670 잣병3개 48,690 제일내과 22,600

광명

김명희 24,000 김희정 17,670 노숙민 10,280 무명 15,080 서용원 27,160 서태원 32,020 석호중 59,450

광주

장성남연우체국 37,410

구미

김명숙 41,640 손신타 26,440 송승재 59,830 이현숙 36,830 장해진 22,360 최화심 31,070

김해

남예주 38,340

내서

머니여사님 2,630 아동복 34,120

노원

김보연 63,390 정해숙 75,440

달서

김국화 35,080 안병철60,300 정유진 45,400

대구

무명 26,660 무명 57,640 무명 15,760 무명 6,490 조장원 17,480 자산동물병원 7,410 프리미엄트목련시 장집 21,980 황유천 25,780

대전

김명순 21,120 고임순 10,520 김서연외 57,400 김선하 175,250 김영우 65,950 김윤경27500 무명 34,500 무명 20,570 무명3 80,190 송미경 35,640 삼성빈 48,370 윤양희 24,300 이순조 19,380 이은숙26,090 이종길 19,200 이준석 18,780 임명희 25,570 장영희 88,960 전경숙 20,700 조명숙51,860 조정숙 27,200 허은경 19,200 홍상선 30,730

대전부사

김종덕 22,810 무명 285,780 박병익 22,920 손호영 20,920 윤여철 26,400 이해경 37,670 최은주 24,640

동래

강양중 33,130 권가윤 24,010 김경희 29,180 김기현 23,150 통래저금통 286 류숙희 30,800 류숙희24,800 무명 32,920 무명 23,200 부곡초6-3번 40,900 서호성 157,840 손연숙 25,060 윤순도

21,000 정숙희 36,560 최정임 22,700

마산

김우상 15,270 김지훈 58,680 무명 336,240 박경자 36,800 박삼숙 38,200 유선준 17,150 이우희 33,540 증철 38,710 최태범 30,640

문경

고재숙33,590 김혜련 19,810 최우근 27,310

분양

김영례 28,680 김영미 28,940 오동훈 18,170 전지민 40,560 주주미 70,160 홍양숙 32,760

서초

강동균 25,330 김세화 46,000 김승일 5,720 김애경 29,470 김은숙 22,100 김종경 8,350 김혜진 42,680 김희준 15,730 류금선 7,440 무명25개 808,210 박미래 61,610 박숙정 28,660 백영호 40,700 백기학 15,140 성은정 34,040 신월명 6,860 심유현, 고영신, 지혜동이 94,760 양영신 39,240 양민석 30,070 여복순 22,820 유미라 50,800 이병석(이성미) 29,630 이상원 22,790 이우진 29,990 이재근 13,000 이창재 35,230 임희근 34,080 임카하나 16,100 전상은 55,900 전형수, 상수 55,160 조주은 35,480 주경애 23,530 채효정 32,810 채효정 26,220 탐앤타스 149,160 허상만 20,200

울산

김미옥71,530 김숙자 32,000 김용안 30,850 김희정 72,250 로데오30,290 무명 1,000 무명 25,320 미래에셋 3,880 박은선 22,830 성경희 24,100 성경희 28,400 성경희 26,300 심숙희 42,340 심숙희 44,000 안민환의외 18,610 오규권 30,000 윤연화 6,390 이경숙 22,150 이주연 14,850 이무주 31,140 탐앤타스외 28,320 화장품프라자 35,930

원주

원주저금통 41,500

정읍

강동우, 강동현 49,430 서순석 40,610 채범석 15,750

제천

김문용 20,150 이은주 25,420 정향숙 11,500 정향숙 18,740

창원

박백현 21,230 박선미 44,360 시흥규 32,070 신순옥 24,530 전찬웅 21,650 창원저금통 70,160

청주

김득남 12,920 김진양 17,110 대신위원 34,020 무명 33,850 박현주 13,380 신용남 22,880 윤광

천 32,830 조태진 55,370 지명구 20,290 최용석 28,730

통영

통영저금통 134,250

해운대

신현희19,430 김동명 31,310 김명자 49,000 김은숙 23,800 무명 60,300 문원보 31,250 박선희 21,490 박정아 12,050 이은희 34,910 이하윤 47,390 정도희 15,720 조재호 66,780

기타

강동농협 21,330 금삼승민승필 28,000 김미숙 22,600 김민석(김규방)55,300 김영 1,000 김영 1,000 김용훈 208,000 김윤경 48,720 김윤미 113,260 김주현 109,390 김채은 15,000 김찬희 58,000 김희진(남양주)95,600 도균성하 3,300 베뉴 호텔하브점 28,650 손연우 47,030 손유휘 13,621 스탠다드커피타거즈 39,180 안확찬(태백) 16,580 오대환 20,300 외환은행한남동지점 101,230 윤임교 3년1반 51,800 윤영미 38,000 윤태영 66,950 이경애17,950 이병문 66,510 이승영 38,000 이승현53,770 임석우체국장 105,490 자연드림반여점 29,220 주기훈 12,480 청년통일학교저금통 804,830 최현정 29,280 한미음반송점 102,320 한승명실래 6,310 한승명실래 4,410 한진범 6,900 한진범 7,500 한진범 8,750 한진범 10,100 한진범 13,000 흥해진 25,500

거리 모금 현황

2014년 02월 01일부터 2014년 03월 31일까지
 강서 139,100 거제 316,570 거제서포터즈 351,800 광명서포터즈 517,960 김해 314,860 내서 656,480 내서코오롱사우나 190,000 노원 741,680 달서 184,258 달서서포터즈 1,170,000 대구 2,917,288 대구서포터즈 2,204,340 대전 807,370 동래서포터즈 1,000,090 마산 173,130 문당 1,240,030 순천 조례초교6-6 315,950 안동 161,000 안성 320,130 안양 134,900 양미순 30,000 양천 572,890 울산 451,980 인사동 1,509,300 인천 241,220 일산서포터즈 776,900 일재서포터즈 15,000 진주 860,560 진주서포터즈 278,600 창원서포터즈 1,351,730 평택 424,990 포항 349,370 포항서포터즈 591,63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